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4월 28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제물포르네상스 계획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2팀장</li> <li>• 담당자</li> </ul>	음현규 ☎440-7321 박철규 ☎440-732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해수부·IPA, 인천항 내항 발전위해 협의체 구성

- 28일,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 별도 구성도 -
- 인천항 내항의 미래와 수도권 성장거점 조성 및 원도심 상생발전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8일(금)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이하 ‘공동협의기관’)로 구성된 ‘인천항 내항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공동협의기관은 인천항 내항의 효율적 운영 분석, 수도권 성장거점으로서의 발전, 충분한 논의를 통한 원도심 상생발전 등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최고위정책협의체를 통해 인천항 내항의 효율적 운영 및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최고위정책협의체는 인천시 행정부시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인천항만공사장으로 구성하고, 반기 1회 개최하되, 실무협의체를 별도 구성해 중요 정책적 사안은 최고위정책협의체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내항은 지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이자 무한한 미래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지금이 내항의 가치 재창조 방안을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할 시점이다.” 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정책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항 내항이 다시 대한민국 미래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